

의료보험약가 무엇이 문제인가

이준규/경향신문 과학부기자

지난 77년 7월 1일 의료보험과함께 출발한 의료보험약가(樂價) 제도는 시행 14년째로 접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 채 국민들을 혼란 속에 빠져들게 하고 있다.

물론 이 제도의 실시이후 의약품가격 인하로 국민들의 약제비부담 경감 등 긍정적인 면도 많았으나 제약사(社)간의 과당경쟁, 유통체계의 문제 등이 적지 않은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89년 7월 전국민의료보험실시이후 국민의 의료이용률이 급증하고 건강에 대한 인식이 향상됨에 따라 가계비 가운데 의약품비의 부담도 상대적으로 늘고 있어 보험약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은 바로 국민의 건강과 생활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라 할 수 있다.

보험약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에 앞서 우선 약가(樂價)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약가는 현재 보험약가와 표준소매가로 분리되어 있는게 특징. 보험약은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에 의해 투약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주로 보험요양취급기관에 의해 사용되는 의약품을 말한다.

이와는 별도로 일반의약품의 가격을 결정짓는 표준소매가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가벼운 질병이나 상처를 입었을때 그 증상을 환자 스스로 판단하거나 약품을 구매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보험약가에 대한 문제점이다. 의료보험약가는 전국민의료보험제도 등 보험확대 실시에 따른 피보험자 증가로 인해 약품수요를 확대 시켰다.

의료이용률의 증가에 크나 큰 기여를 한 셈이다.

또한 치료제의약품의 생산에 활기를 불어넣어 치료제 개발의욕을 제고시킨 것은 의료보험약가의 성과가 아닐 수 없다.



반면 의료기관과 제약업체간 거래에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거래양태가 문제점으로 지적되는가 하면 업체끼리 과당경쟁을 유발시키기도 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유통경로의 문제이다.

보험약가질서는 현재 제약협회와 병의원 등과 유대 및 협의를 통해 질서체계가 개선되고 있는 분위기지만 얼마전까지만 해도 보험납품상의 거래관행으로 많은 문제가 노출되기도 했다.

예를들어 사립의료기관의 경우 제약업소나 품목별로 경합을 유도하여 수의 계약을 통해 납품을 하면서 많은 부작용이 뒤따랐던 것이다.

이같이 유통거래상의 문제는 병의원과 제약회사간의 관계로 인한 것도 있지만 의료기관과 도매상, 도매상과 제약업체와의 거래관행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도 비일비재하다.

또다른 문제점으로 제약회사가 병의원에 보험약을 납품하면서 발생하는 덤핑 등 과당경쟁은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공급하는 측(제약회사)은 더 많이 공급하려 할 것이며 공급받는 측(병원)은 가급적 싸게 공급 받으려는 것이 거래의 기본 모습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싸게 많이 팔고 싸게 공급 받으려는 거래가 법의 규정을 어기고 급기야는 상도덕마저 무시한 채 출혈경쟁을 낳아 불신으로까지 확대되는데 있다.

이같은 파급효과로 환자진료에 없어서는 안될 필요한 약들이 생산중지 등으로 어느날 갑자기 사라져 진료를 받던 환자는 치료를 중단해야 하는 심각한 상

**의료보험약가 제도의 실시이후
의약품가격 인하로 국민들의
약제비부담 경감 등 긍정적인
면도 많았으나 제약사(社)간의
과당경쟁, 유통체계의 문제 등이
적지않은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황에 빠지게 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결국 피해는 제약업계쪽만이 아닌 환자들인 격이다.

법규를 어겨가면서 국민의 불신을 야기시키는 거래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이는 의약인 모두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결론적으로 보험약가제도는 현실적으로는 바람직한 제도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선행조건으로 제약기업을 제도적으로 육성해 주고 이에따른 유통질서 체계확립 등이 전제 되어야 한다.

이같은 전제조건 없이 의료보험약가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기 때문에 문제는 항상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국내제약기업들이 UR협상진전 여하에 따라 막대한 타격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하기위한 의약인 모두의 적극적인 자세는 반드시 필요하며 국민들의 협조가 또한 필요한 것이다.

국민신심용으로 무턱대고 약값만 내리기 보다는 적정 가격이 형성되어 환자의 치료가 최대한 보장되고 치료를 담당하는 병원과 약품은 공급하는 제약업자 등 모두에게 바람직한 정책을 국민은 원하고 있는 것이다. †